

# 공예가 가진 특별한 힘...인간·자연·세계를 잇다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 사물의 지도

강재영 외 지음

“공예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 수천 년간 이어진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교감과 공진화의 역사이자 결과물입니다. 공예가들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과 맺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매순간 확인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예에 대한 명징하면서도 적합한 정의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평소에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게 공예품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존재다.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물에 가치와 창의성을 투영한다.

공예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진화시켜왔는지를 조명한 '사물의 지도'는 흥미로운 책이다.

책은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사물의 지도'를 주



제로, 작가들이 만드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공예, 세상을 잇고, 만들고, 사랑하라'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공예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집필에는 강재영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비롯해 김예성 책임 큐레이터, 황혜림 선임 큐레이터, 김연우 선임 큐레이터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사실 공예는 “문명의 몸과 실체를 직접 구현하고 만들어 나가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야다. 상징이나 기호와 같은 체계로 작품을 형상화하는 시나 소설 또는 회화 등의 장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강 감독은 공예는 인류 문명의 뿌리이자 무의식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슈퍼컴퓨터나 AI도 처음엔 몽땅한 손도끼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인류가 가진 “근원적이고 오래된 ‘지적 설계’가 가진 특별한 힘”이라 할 수 있다.

강 감독은 공예가 가진 특별한 능력과 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와 연계해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로 만들어진 다양한 사물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 단순히 공예를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개념이 아닌 인간, 자연, 세계를 포괄하는 다면적이고 다층적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사물'(objet)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인류가 수천 년간 자연과 함께 만들어 온 '사물의 지도'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사물의 지도'는 6개의 주제를 토대로 인류문명의 진화과정 속에서 공예가 어떻게 진화하고 다양해졌는지를 들여다본다. 18개국 100여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그리는 공예지도인 셈이다.

먼저 1장 '대지와 호흡하며 함께 하는 사물들'은 대지, 다시 말해 흙과의 호흡을 통해 서사를 완성해가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흙과 시간이 만들어 낸 금속의 개성 있는 표정을 표현한 작가부터



다카시마 히데오 작  
'땅 빔으로 채워지다'

전 형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자신만의 예술적 시선을 통해 문화를 담고 있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보라 무어 작 '붉은 꽃병에 담긴 난초'

## K문학의 탄생

## 조의연 외 엮음

2016년 맨부커상 수상 '채식주의자', 2020년 전미비엔날 수상 '히스테리아', 2021년 대가상 수상 '밤의 여행자들'...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원작이 번역돼 외국에 소개된 작품들이다. 세계 주요 언론 매체에 추천, 소개되면서 한국문학의 매력을 알린 작품이라는 것이다.

K컬처가 확산하면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 독창성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한국문학 또한 세계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번역가들은 한국문학을 K문학으로 이끈 숨은 주역들이다.

한국문학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를 조망하는 책 'K문학의 탄생'은 한국문학 위상을 높인 번역가와 번역 연구자들을 다뤘다. 한국 문학 번역의 비밀을 다룬 의미 있는 책이다. 책을 엮어내는 조의연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를 비롯해 이장민 한국외대 영어대학 EICC학과 교수, 제이미장 번역가 등 모두 8명이 참여했다.

“결과물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번역가는 원작자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기 쉽지 않으며, 간혹 오역이라도 있으면 번역가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번역가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오늘의 한국문학의 도약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번역가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책에서는 한국 현대 시 번역의 권위자 안재전을 비롯해 한국 현대 소설 번역의 권위자 브루스 폴턴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물론 오역 논란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책은 오역 논란에서 벗어나 창조적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번역가의 기고는 영어 원본도 함께 실어 의도를 최대한 반영했다.



김영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작고 아름다운 니체의 철학수업

## 자연리 지음

“니체 할아버지, 제겐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정한 자신의 길을 걷는 지 알려면 걸음걸이를 보면 돼. 자기 자신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걸음이 가볍기 마련이니까. 눈에 빠지더라도 그는 진흙탕 위를 사뿐히 걸어. 거기서도 얼음 위에서처럼 춤을 춘다. 이해되었나?”

100명의 아이들이 100가지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니체 할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다.

화가이면서 동화작가인 자연리가 쓰고 그린 '작고 아름다운 니체의 철학수업'은 어린이들과 함께 질문여행을 떠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철학 동화다. 책에는 무려 100가지나 되는 질문이 던져지고 역시 100가지 답이 이어진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른이 함께 읽어도 좋을 지혜로운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이야기 속 니체는 걱정이 많아 고민인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조언해주고, 행복해지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지 묻는 아이에게는 “사람들이 동물과 아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해준다.

저자는 “인격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인성을 성장시켜주는 영양분은 바로 '질문'에 있다”고 말한다. 질문하지 않는 지성은 살 수 없을 것이고, 질문하지 않는다면 인문학과 과학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신은 죽기 전에 우리에게 프리드리히 니체를 남기고 떠난 것 같습니다. 철학자 니체 할아버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열림원어린이·1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아는 동물의 죽음

## E.B. 바텔스 지음·김아림 옮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시인 엘프리드 테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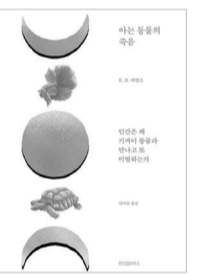
사랑에 대한 시인의 경구는 용기를 주지만, 죽음을 말미암아 이별해 본 사람은 관계맺기에 주저한다. 비단 인간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관계와 이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된다.

오랜 시간 반려동물과 함께해 온 저자 E.B. 바텔스가 최근 '아는 동물의 죽음'을 펴냈다. 예견된 발명 앞에서 인간은 왜 반려동물 혹은 존재와 서로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는데 대한 경험적 성찰을 담았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맞닥 사랑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자는 것.

“반려동물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추모의 그림과 무덤 중에 꺼안을 수 있는 건 없다.”

잔인하지만 그 많은 사랑을 주어도 사랑하는 존재란 소멸하면 그만이다. 인간이나 동물을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 '침묵'한다. 저자는 이같은 슬픔에서 탄생한 고대 이집트 미라, 중세시대의 박제, 유전자 복제 등 '연구보존 기술'의 변천사를 언급한다. 그러면서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욕망 너무 우리가 상기해야 할 진짜 애도의 방식을 사유케 한다.

책은 헤어짐을 딛고 일어서는 담대함을 가르쳐준다.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그것을 '안다'라고 연설하는 동안 떠나간 존재들은 오래도록 비망록에 남아 있게 된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또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해본 이들에게는 의미있는 책이 될 것 같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9월호

2023년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디자인을 만나다**

meet design

삶을 바꾸는 디자인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가을·문화 축제 만끽

멋과 맛 함께  
완도 여행

청정 바다  
난대 숲길  
장보고 섬

'국립난대수목원' 거점난 완도수목원 | 신지 청정바다  
'국립해양수산물관' | '슬로시티' 청산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안도건강' 유기농 다시마  
해양바이오투구센터 입주 스타일 아일랜드 완도 더플문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에필로그

도시의 공공조형물, 일상 속에서 교감할 때 소중해진다

우리 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① 한희원미술관  
한희원과 양림동 '예술의 시간' 채운 미술관

에향 초대석

제4회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조병수**  
“미래 도시는 땅과 물과 바람의 흐름을 이어야”

특별기획 - 新진남관광역지도 ④

남종화의 산실, 수목학의 수도가 되다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④

2023폭포문화박람회  
**목포가 낳은 작가들 조명**

황인 '예술가의 한 끼' ⑧  
호남의 누정 ⑨ 광주 풍영정  
아름다운 풍광서 만나는 옛 선비의 詩文  
극락강 지나는 은하철도 극락강역  
오동진의 '시내마 역사' ⑨  
아일랜드 동족상잔의 비극·진영 갈등 우리와 닮았네